

이사야 7:1-25의 번역상의 논쟁점 연구

김희권*

1. 서론

이사야 7장은 이사야서 전체를 관통하는 ‘믿음’의 문제를 다룬다.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7:9)을 의미하거나 강대국의 힘에 대한 믿음, 곧 우상에 대한 믿음을 가리킨다(28:15; 29:15; 30:1-3; 31:1-3; 41:21-24; 46:5-10). 이 글은 히브리어 본문 이사야 7장이 제기하는 번역상의 쟁점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나님을 정녕 믿지 못하면 굳게 서지 못한다”고 말하는 이사야의 중심 메시지를 부각시키려고 한다. 이 논문의 목적은 두 가지다. 첫째, 이사야 7장의 사역을 통해 그동안 한글성경에서 간과되었던 몇 가지 번역상의 쟁점을 제기하고 새로운 번역을 시도하는 데 있다. 둘째, 이사야 7장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추상적인 신조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간섭에 대한 신앙을 의미하며 그 신앙의 유무가 국가적 존망지추의 시기에 의미심장한 정치적 함의를 갖는다는 사실을 밝히는 데 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다윗의 집에 기대하는 믿음은 다윗 언약에 입각한 하나님의 구원 간섭에 대한 다윗 가문의 믿음이다. 하나님의 구원 간섭에 대한 믿음은 강대국들의 침략과 국가 멸망 위협으로부터 유다 왕실을 지켜주고, 더 힘센 강대국의 군사력에 대한 자기 과멸적 의존을 막아준다. 다윗 왕실의 아하스는 이사야를 통해 들려진 하나님의 구원 신탁을 믿지 못하고 급기야 그의 아들 히스기야도 하나님의 구원 간섭을 믿는 대신에 강대국과의 동맹 외교와 군사 무장화를 통해 앗수르 침략에 대처하다가 유다 국토 전역을 국제전장으로 내어주는 파국적 사태를 초래한다.

이처럼 이사야 7장은 시리아-에브라임 전쟁 상황과 주전 701년의 앗수르 위기에 대한 이사야의 응답까지 담고 있다. 시리아-에브라임 위기의 내용은 주전 735-733년에 이 두 동맹국이 아하스 왕을 폐위시키고 다브넬이라고 하는 정체 불명의 인물을 유다 왕으로 세우려는 것이었다. 이들은 다윗의 후손이 다윗의 위(位)를 영구적으로 계승할 것이라고 확약한 하나님의 다윗 언약

* 숭실대학교 교수, 구약학.

(삼하 7:12-16)에 대해 중대한 도전을 한 것이다. 이사야는 아하스에게 이 다윗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다윗 왕실을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며 종용하여 하나님을 믿으라고 요청한다. 그러나 유다 왕 아하스와 다윗 왕실은 이사야를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수용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다윗 언약을 상기시키는 임마누엘 신탁을 베푸신다. 아하스와 유다 왕실은 그래도 믿지 못한다. 여기서 하나님의 구조(救助) 예언이었던 임마누엘 신탁은 심판 예언으로 전환된다.

2. 본문 사역(私譯)

1. 유다 왕 **웃사야**의 아들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의 시대에, 아람 왕 **르신**이 이스라엘의 왕 베가와 **함께** 예루살렘과 전쟁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으나** 그가 능히 이기지 못하였다. 2. 다윗의 집에 아람이 에브라임에 **진쳤**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바람 앞에 숲의 나무들이 흔들리듯이 **그의 마음이** 그의 백성들의 마음과 **함께** 떨렸다. 3. 그래서 야웨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 아들** 스알야습과 **함께** 세탁자의 발 옆에 있는 윗 못 수로의 끝에 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4. 그리고 너는 그에게 말하여라: “조심하며 진정하라. 이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며,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의 격노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5. 아람이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과 함께 너를 향하여 악한 일을 계획하였다 — 6. ‘우리가 유다에 올라가서 침략하여 우리를 위하여 정복하자. 그리고 그들 중에 벤 다브넬을 왕으로 세우자.’라고 말하였다 — 그렇다고 네 마음이 낙담하지 않도록 하라. 7. 주 야웨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것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그것은 성취되지 못할 것이다. 8. 왜냐하면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기 때문이다.

9.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8. [6년 내에 **아람**은 더 이상 한 **나라**로 존재하지 못할 것이요] [5]년 내에 에브라임은 더 이상 **한 백성**으로 존립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9. 만일 네가 믿지 못하면, 네가 굳건해지지 못할 것이

1) 『개역개정』이나 대부분의 영어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본문 부식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지만 색다른 본문 교정을 시도하지 않는다. 주전 735-734년 어느 시점에 선포되었을 이 예언이 ‘65년 후에 에브라임이 더 이상 백성으로 존립하지 못할 것이다’고 예언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시나리오다. 후대의 서기관이 추가했다는 가설 또한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Jewish Study Bible, 798). 저자는 지미 라버츠가 시도했듯이(1997년 프린스턴신학대학원 박사과정 세미나 Seminar on First Isaiah 수업 시간), 위의 경우처럼 사역을 시도한다. 주전 732년에 아람이, 주전 721년에 에브라임이 사실상 망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절은 역사

다.”

10. 야웨께서 또 아하스에게 이르셨다. 11. “네 자신을 위하여 네 하나님 야웨께 하나의 징조를 구하라. 음부만큼 깊은 곳에서든지 혹은 하늘의 높은 곳에서든지.” 12. 아하스가 말하였다: “나는 구하지 않겠으며 야웨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13. 그(이사야)가 말하였다: “다윗의 집이여! 들으라! 사람들을 곤비하게 하는 것이 작은 일이라고 이제 감히 나의 하나님마저 곤비하게 하느냐? 14. 그러므로 주 당신께서 친히 너희에게 한 징조를 주실 것이다. 보라,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녀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로 부를 것이다. 15. 그가 악을 거부하고 선을 선택할 줄 알 때쯤에는 **그가** 버터와 꿀을 먹고 연명할 것이다. 16. 왜냐하면 그 아이가 악을 거부하고 선을 선택하는 것을 배우기 전에 내가 무서워하는 바로 그 두 왕들의 땅들이 버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17. 야웨께서 너와 네 백성들과 네 아비의 집에 에브라임이 유다로부터 분리된 이후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날들이, 즉 앗수르 왕²⁾이 엄습하게 할 것이다.

18. 그 날에 야웨께서 애굽의 수로(水路)들 끝에 서식하는 파리 떼들과 앗수르 땅에 있는 벌들에게 휘파람 신호를 보낼 것이다. 19. 그래서 그들이 모두 울퉁불퉁한 마른 시내들과 바위들의 틈새와 모든 가시덤불들과 모든 개울들로 올 것이다. 20. 그 날에 주께서 유프라테스 저편에서 빌려온 먼도날로, 곧 앗수르 왕으로, 머리털과 다리털과 심지어 턱수염까지 자를 것이다. 21. 그 날에 매인(每人)이 한 어린 암소와 두 마리 염소를 기를 것이다. 22. 젖의 풍성함을 인하여 사람은 버터를 먹을 것이다. 그 땅 가운데 살아남은 모든 사람들은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다. 23. 그 날에 은 일천 냥의 값어치가 나가는 포도나무 1000주가 서 있던 모든 장소는 가시덤불과 쥘레더미가 될 것이다. 24.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려면 활과 화살을 가지고 가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농토는 가시덤불과 쥘레더미가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25. 한 때 호미로 갈던 모든 산에도 가시덤불과 쥘레더미가 무서워서 들어갈 수 없을 것이며 그곳은 소가 다니며 양이 밟는 땅이 될 것이다.

2.1. 사역상의 쟁점 논의

-
- 적 시의성이 강한 예언이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 2) “날들”과 앗수르 왕이 호격처럼 표현되어 있어 여색해 보이거나 마소라 본문을 직역하면 이렇게밖에 번역되지 않는다. 주석가들은 옛트나 표시가 된 ‘쭈르-에프라임 메알 여후다’의 뒤에 나오는 ‘옛-멜렉 앗수르’를 후대 서기관의 추가로 보는 데 이견이 없다. 일단 우리도 이 점을 인정하지만 ‘옛-멜렉 앗수르’를 그대로 두고 번역한다.

1절

유다 왕 웃시야: 『개역개정』에서는 “웃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라고 번역했는데 이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구문상의 의역이다. “멜렉 유다”는 “웃시야” 바로 뒤에 배치되어 있어 “유다 왕 웃시야 ...”로 번역되어야 한다. NAB나 Tanak Jewish Study Bible 등도 대부분 이렇게 번역한다. 아하스 왕의 사태가 웃시야 왕으로부터 시작된 유다 왕실의 기풍과 관련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표현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르신이 ... 함께: 이 절의 구문은 르신(Rezin)이 주도하고 이스라엘 왕 베가(Pekah)가 동조하는 형국임을 강조한다. 히브리어 등위 접속사 와우(waw)는 “함께”(along with)로 번역되어야 한다. 와우 접속사 앞의 단어가 주체적 행동자요 와우 뒤의 단어는 부차적인 주어다. 2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

올라왔으나: 『개역개정』의 번역은 1절의 “올라오다”의 동사의 주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지 못하나 히브리어 원어 성경은 3인칭 남성 단수(‘ālā)를 사용함으로써 예루살렘 원정의 주체가 아람임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2절

진쳤다: “진치다”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동사 nāhā는 nūāh의 3인칭 여성단수 완료형으로서 “아람이 에브라임(‘al) 주둔하였다”는 의미이다.³⁾ 『개역개정』이나 여러 학자들이 시리아-에브라임 동맹이라는 역사적 상황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아 “동맹을 맺다”라고 번역하는데, 무리한 번역처럼 보인다. 동맹을 맺은 사실이 아니라 예루살렘 근처의 어떤 에브라임 산지에 주력 군대를 주둔시키고 예루살렘으로 육박하는 상황이 아하스를 심각한 공황 상태로 몰아넣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그의 마음이 ... 함께: “떨다”의 주어는 3인칭 남성 단수 왕의 마음인데 떠는 왕의 마음이 백성들에게 전염되어 함께 떨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3절

네 아들 ... 함께: 여기서도 ‘와우’는 “함께”로 번역되어야 한다. “가라”는

3) BDB, 628; Hans Wildberger, *Isaiah 1-12*, T. H. Trapp, trans. (Minneapolis: Fortress, 1991), 283; J. D. W. Watts, *Isaiah 1-33*, WBC (Waco: Word Books, 1985), 85-86.

명령형 동사(*ṣē-nā'*)는 2인칭 남성 단수다.

4절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앞 구절과 뒷 구절 둘 다에 걸쳐 있다. A-B-A' 구조인 셈이다. 따로 괄호 안에 매끄러운 읽기를 위해 ‘두려워하지 말라’를 삽입해 둔다.

8절

아람은 ... 나라로 ... 에브라임은 한 백성으로: 이 절은 현재 히브리어 원전에는 8절에 배치되어 있지만 내용의 흐름상 9절 “에브라임의 머리 ...” 다음에 와야 한다. 65년은 6년과 5년의 병치가 본문 훼손을 거쳐 결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⁴⁾

14절

그 여자 ... 그녀가: 히브리어 “하알마”의 “하”는 정관사지만 특정인을 지명하는 정관사가 아니라 통칭관사(*generic article*)로 볼 수도 있다.⁵⁾ 그런 경우 그냥 가임 여성을 총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여자”보다는 “여자”가 낫다.⁶⁾ 하지만 우리는 7-8장 전체의 문맥에 비추어 이사야의 아내를 가리킬 가능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 여자”로 번역한다. MT에 따르면 임마누엘 이름 작명자(칼 와우 연속법 완료3인칭 여성단수형)가 3인칭 여성단수(곧 임마누엘 엄마)인데 『개역개정』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번역함으로써 주어가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고 얼버무린다. 70인역은 주어를 “부르다”(καλέω)의 2인칭 미래단수(“너희가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로 본다(καλέσεις).⁷⁾

4) 현재 모습은 내용상 및 운율상(*metrical*) 전혀 자연스럽지 못한 배치를 보여준다. 일찍이 65년을 6년과 5년으로 나눠 생각한 학자들(H. Grotius와 Cappellus)은 있었으나(Joseph A. Alexander, *Commentary on the Prophecies of Isaiah*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76], 163), 이 절들을 이런 식으로 재구성한 이사야 주석가는 지미 라버츠(J. J. M. Roberts)다.

5) 제임스 L. 쿨걸, 『구약성경 개론』, 김구원 강신일 역(서울: CLC, 2011), 799.

6) 이 하알마 구절이 마태복음 1:18-25 동정탄생 수태고지 사건에 인용되는 과정에 대한 제임스 쿨걸의 논의(쿨걸에 따르면 70인역마저도 동정탄생으로 이해할 필요가 없는 번역일 뿐이다)를 참조하라. 또한 이사야 7:14가 중세 때부터 만연해진 동정녀 마리아 숭배사상 형성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존 소여(Sawyer)의 글을 참조하라(『제 5복음서』, 김근주 역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3], 105-107).

7) Jewish Study Bible(Tanak Translation)은 “Let her name him Immanuel”이라고 번역하여 주어는 정확하게 적시하고 있다(798).

15절

그가: “떡다”의 능동분사형 요켈(yô’kēl)에 아트나가 붙어 있어 여기까지를 반소절로 끊어도 된다. 이런 경우 요켈의 주어가 3인칭 남성 단수로서 반드시 그 아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필요가 없다.⁸⁾

3. 주석

7장은 장르상 1-17절과 18-25절로 나누어진다. 1-17절은 다윗 집의 불신앙과 씨름하는 이사야(하나님)를 보여주는 1-9절과 임마누엘 예언으로 아하스를 도우시려는 하나님(이사야)을 보여주는 10-17절로 나뉜다. 18-25절은 불특정한 미래를 가리키는 표현인 “그 날에”로 시작되는 예언자적 설교다. 어떤 학자들은 1-17절과 18-25절이 편집자의 손을 거쳐 하나가 되었다고 보지만,⁹⁾ 본고는 오히려 두 소단락의 주제적 응집성을 강조한다.¹⁰⁾ 18-25절을 1-17절 특히 17절의 주제적 확장이요 17절을 예해(例解)하는 예언적 강론이라고 본다. 18-25절은 각각 ‘그 날에’라는 구절로 시작되는 네 개의 소단락(18-19, 20, 21-22, 23-25절)으로 구분되는데, 17절에 선포된 전무후무한 재난이 미래로 투사된 특정한 “그 날에” 일어날 일을 묘사하고 있다. 즉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믿지 못할 때” 엄청난 재난의 날이 쇄도한다는 것이다. 이사야 7장은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녕 굳게 서지 못하리라”라는 이사야의 케뤼그마(Isaianic kerygma)를 예해(例解)하고 있다.¹¹⁾

3.1. 이사야 케뤼그마: “믿지 않으면 능히 서지 못하리라”(1-9절)

주전 735-733년 동안에 앗수르 제국이 팔레스틴 내에 군사 및 상업 기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블레셋 원정을 시도하자, 시리아-팔레스틴의 맹주임을 자처하던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선동하여 반앗수르 전선을 형성하면서 팔레스틴 소왕국들을 반앗수르 전선으로 묶으려고 전력을 경주했다. 아람은 유다로부터

8) JPS Hebrew-English Tanak은 3인칭 복수(불특정 사람들)로 번역한다(860).

9) Shmuel Vargon, “Isaiah 7:17-25: Prophecy of Rebuke or Consolation?”, *JANES* 26 (1998), 107-120(특히 108).

10) 저자와 같은 입장을 가진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다: K. Budde, “Das Immanuelzeichen und die Ahaz Begegnung Jesaja 7”, *JBL* 52 (1933), 22-54; Y. Gitay, *Isaiah and His Audience. The Structure and Meaning of Isaiah 1-12* (Assen; Maastricht: Van Gorcum, 1991), 128-145.

11) 어거스틴과 종교개혁자들 이래로 이사야 연구자들은 이사야서의 주제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라고 보는 데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곽안련, 『이사야서 연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58], 3-4).

터 엘랏을 빼앗아 복속시켰고(왕하 16:6; 대하 28:8-15), 북이스라엘도 유다의 성읍들을 공격하여 12만 명을 도륙하고 많은 포로들을 잡아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1-9절은 이런 정황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도하고 있다.

1절의 주어가 3인칭 남성 단수인 아람 왕 르신임을 볼 때 시리아-에브라임 전쟁이 아람 왕 르신이 주도하고 이스라엘 왕 베가와 에돔, 블레셋 등이 동조하여 전개된 전쟁임을 알 수 있다. 앗수르 자료들을 성서 본문들과 함께 읽어 보면, 당시의 국제정치 맥락상 이 시리아-에브라임 동맹이 앗수르 제국의 남진을 봉쇄하려는 시리아-팔레스틴 지역 왕국들의 공동 방위 체제 구축의 의미를 가졌을 것이라는 점을 추정해 볼 수 있다.¹²⁾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람은 북이스라엘의 도움을 받아 반 앗수르 전선 가담을 설득하는 목표를 넘어서서 아예 아하스 대신 벤 다브넬이라고 하는 인물¹³⁾을 왕으로 세워 사실상 다윗 왕조의 대를 끊으려고 했다(1절). 예루살렘과 가까운 에브라임 산지에 주력 군대를 주둔시키고 성을 함락시킬 기세로 육박하는 동맹군 앞에서 아하스 왕은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다(2절). 2절의 “떨다”라는 동사(nûā‘)의 주어는 3인칭 남성 단수인 아하스의 마음인데 왕의 떠는 마음이 백성들에게 전염되어 함께 떨게 되었다.¹⁴⁾ 왕의 마음 속에 있는 두려움은 금세 백성들의 두려움으로 번져갔다는 것이다.¹⁵⁾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두 나라 동맹 군대는 예루살렘을 쉽게 함락시킬 수 없었다.

3-9절은 스알야숨 예언으로 아하스를 도우시려는 하나님의 비상한 노력을 보도한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사야와 그의 아들 스알야숨은 전쟁과 같은 장기간의 위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상수도를 예루살렘 성내로 끌어들이려는 수도 공사 현장에서 왕과 대면한다(3절). 이사야는 아하스 왕에게 시리아-에브라임 동맹군을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고한다. 그 이유는 두 동맹국 왕은 “연기 나는 두 부지깅이”이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이사야는 스알야숨의 이름을 통해 이 두 나라의 군사적 패주를 암시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12) J. Alberto Soggin, *An Introduction to the History of Israel and Judah*, John Bowden, trans. (Valley Forge: Trinity International Press, 1993), 237-238.

13) 학자들은 이 다브넬이라는 인물이 트랜스 요르단 지역의 고관 귀족이라고 보거나(Soggin, *ibid.*, 239) 심지어 트랜스 요르단 출신의 아내와 아하스 사이에 태어난 왕자일 것이라고 추정한다(W. F. Albright, “The Son of Tabeel [Isaiah 7:6]”, *BASOR* 140 [1955], 34-35).

14) 밀러(J. M. Miller)와 헤이즈(J. H. Hayes)는 아하스의 주된 공포와 불안은 유다 왕국이 시리아-에브라임의 반앗수르 동맹에 가담하는 것을 더 좋아했던 대다수의 유다 유력계층 백성들의 내부 반란 가능성 때문이었다고 말하는데 이 점이 그들과 저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주석가들과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다(J. M. Miller & J. H. Hayes, *A History of Ancient Israel and Judah* [Philadelphia: Westminster, 1986], 343).

15) 『개역』 성경이나 영어성경은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 둘 다를 주어로 번역함으로써 두려움의 심리적 확산 과정을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다.

군게 믿으라고 설득한다(왕하 16:7-9; 대하 28:16). 3절이 “(너와) **네 아들** 스알야슈”을 강조한 것을 보면 이사야가 벌써 시리아-에브라임 동맹이 형성되는 초기부터(3년 전부터) 이 군사동맹의 실패를 예언해 왔음을 알 수 있다.¹⁶⁾ “스알야슈”은 “오직 남은 자만 돌아가리라”라는 뜻이다. 전쟁 상황에서 “남은 자”는 항상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를 가리킨다. “남은 자만 돌아가다”는 불길한 예언은 고대 근동의 전쟁 결과를 보고하는 문서에 관용어법으로 자주 등장하는 “남은 자”와 “돌아가다”의 결합이다.¹⁷⁾ 여기서 두 연합군 군사 중 오직 소수의 군사들만이 살아남을 것이라는 예언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다¹⁸⁾ (사 17:1-7). 그래서 3절에만 구원 신탁에 전형적으로 등장하는 서너 개의 명령어가 등장한다. “너는 삼가며 중용하라.” “두려워 말라.” “낙심치 말라.” 특히 “두려워 말라”는 구원 신탁이다.¹⁹⁾ 이 명령은 다른 세 개의 명령 동사들로 둘러싸여 있다. “두려워 말라”라는 구원 신탁의 경우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혹은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라는 말이 부착되는데, “임마누엘”이라는 아이의 이름에 부착되어 있다. 양식비평적인 입장에서 보면 “두려워 말라”라는 계명은 “임마누엘” 예언과 합하여 구원 신탁을 완성한다. “두려워 말라”라는 구원 신탁은 “거룩한 전쟁” 개시 맥락에서 사용된 “두려워 말라” 양식과 비교된다. 즉 “두려워 말라”는 권고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라는 말과 같은 것이다.²⁰⁾

4절 하반절-5절에는 왜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두 왕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고하는지 보다 구체적인 이유들이 나온다. 첫째,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Pekah)가 아하스에게 노할지라도 그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는 이미 심판의 불에 타고 있는 쇠락한 나라들이라는 것이다.²¹⁾ 둘째, 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예루살렘을 차지하려는 그들의 계획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이다.

16) J. J. M. Roberts, “Isaiah and His Children”, *Biblical and Related Studies presented to Samuel Iwry*, Ann Kort & S. Morschauer, eds. (Winona Lake: Eisenbrauns, 1985), 195.

17) 이사야 10:20-23에서 “스알야슈”의 의미에는 약간의 신학적 차원이 더해진다. 이 단락은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하나님(히스기야)에게 **돌아올 것을** 예언한다. 7:3의 스알야슈 예언의 신학적 전용이 일어난 셈이다(Hae Kwon Kim, *The Plan of Yahweh in First Isaiah*, Michigan UMI dissertation series [2001], 197-207).

18) 이사야 7:3의 스알야슈 예언의 아하스와 유다를 위한 구조 예언적 성격과 시리아-에브라임 동맹군에 대한 심판 예언적 성격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주석적 논의를 참조하려면, 저자의 *The Plan of Yahweh in First Isaiah*, 194-195를 보라.

19) J. Begrich, “Das priesterliche Heilsorakel”, *ZAW* 52 (1934): 81-92.

20) G. von Rad, *Der Heilige Krieg im Alten Israel* (Zürich: Zwingli-Verlag, 1951), 70-72.

21) W. Robertson Nicoll, *The Expositor's Bible: Isaiah* (New York: Funk & Wagnalls Company, 1900), 105.

5-6절은 이사야가 두 왕국의 유다 침략 의도를 자세하게 알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동맹군의 계획들이 악하다고 하나님께 평가받는 이유는 그들이 공공연히 유다의 다윗 왕조를 멸절시키고 벤 다브넬이라고 하는 정체불명의 아람식 이름을 가진 인물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주신 확실한 은혜(헤세드)를 무효화하겠다는 결의였다(시 89:3-5, 28-29, 34). 이사야는 예루살렘의 정통신학인 이 다윗-솔로몬 왕정신학 전통의 계승자였기 때문에 다윗 왕조가 끊어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²²⁾

결국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면에서 아하스에게 구조 예언을 선포하고 계신 셈이다. 첫째, 아하스로 하여금 스알야습이라는 이사야의 어린 아들을 대면하게 함으로써, 아하스에게 “시리아-에브라임 침략군 중 오로지 몇 사람들만이 살아 돌아갈 것임”을 암시함으로써 격려하셨다. 둘째, 이 두 동맹 침략국의 세력은 약화 일로에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킴으로써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도록 격려하셨다. 셋째, 그들의 계획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계획이기에 성취될 수 없다는 점을 확신시킴으로써 아하스를 격려하셨다.

7절에서 이사야는 다윗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결국 시리아-에브라임의 도모가 서지 못할 것을 직관적으로 깨달았음을 보여준다. 그들의 도모는 좌절될 뿐만 아니라 그 두 왕국 자체가 곧 멸망하게 될 것이다(8-9절). 『개역』 성경이나 영어성경의 8-9절은 히브리 시의 시적 운율과 음보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내용상 흐름에서도 전혀 문맥상 어울릴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 8-9절에는 어희(語戲, wordplay)가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문 부식(textual corruption)이 일어난 것처럼 보인다.²³⁾ 아래의 사역(私譯)은 8-9절에 본문 부식이 있었음을 전제하고 다음과 같이 재구성해 볼 수 있다.

8. 왜냐하면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기 때문이다.

22) 시온신학에 대한 이사야의 의존을 고찰하려면, J. J. M. Roberts의 두 논문을 참조하라: “The Davidic Origin of the Zion Tradition”, *JBL* 92 (1973), 329-344; idem, “Yahweh’s Foundation in Zion (ISA 28:16)”, *JBL* 106: 1 (1987), 27-45.

23) 『개역한글판』 성경은 여기서 본문 부식이 일어난 것을 인정하고 8-9절을 나누지 않고 섞어 놓고 있으나(8-9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도 육십 오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녕히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찌니라”) 『개역개정』은 인위적으로 나누어 놓고 있다(8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육십오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9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6년 [있으면 아람은 더 이상 나라로 존재하지 못할 것이요]
5년 있으면 에브라임은 더 이상 한 백성으로 존립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9.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재구성하면 하나의 시적인 교차대조 구조가 부각된다.

아람 머리-다메섹-다메섹 머리-르신(A)

6년 내에 아람은 더 이상 한 나라로 존재하지 못할 것이요(B)

5년 내에 에브라임은 더 이상 한 백성으로 존재하지 못할 것이요(A')

에브라임 머리-사마리아-사마리아의 머리-르말리아의 아들(B')

추정(*free conjecture*)에 의해 재구성된 이 수정된 본문은 현재의 마소라 본문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읽는 것보다²⁴⁾ 나아 보인다. 어떤 주석가들은 이사야의 이 에브라임 멸망 시점에 관한 예언(“65년 내에”)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II세의 죽음 시점이나 웃시야 왕이 문둥병에 걸린 시점을 기점으로 계산함으로써 “65년”을 살려보려고 하지만²⁵⁾ 설득력이 없다.²⁶⁾ 이 예언은 아하스 시대에 선포된 예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대기적으로 볼 때 이러한 본문 재구성이 현재 『개역』 성경 번역보다 더욱 타당해 보인다.

머리는 히브리어 로쉬(*rô's*)다. 이것을 거꾸로 읽으면 “남은 자”를 의미하는 스알(*šē'ār*)이 된다.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다”가 “아람의 남은 자는 다메섹뿐이다”가 되어 버린다. 시리아-에브라임 전쟁 자체가 일개 왕들의 정치적 야심에 의해 일어난 전쟁이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난 전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들의 유다 침공이 이루어는 도모는 성취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두 나라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날이 곧 올 것이다. 따라서 아하스에게 그들의 미약한 힘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것이다.

“6년 내에 아람은 더 이상 한 나라로 존재하지 못할 것이요 5년 내에 에브라임은 더 이상 한 백성으로 존립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만일 이 예언이 시리아-에브라임 전쟁기간인 주전 734-733년 경에 선포되었다면 두 나라는 거의 5-6년 안에 멸망하거나 더 이상 나라로서의 구실을 하지 못할 만큼 쇠약해

24) 뵐드버거는 이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는 부분은 명백히 후대 삽입이라고 판단하는데 안일한 추정처럼 보인다(*Isaiah 1-12*, 285).

25) Joseph A. Alexander, *Commentary on the Prophecies of Isaiah*, 163.

26) 브레바드 차일즈(B. S. Childs)는 이 65년 예언을 7-9절에 의하여 촉발된 후대 첨가물이라고 간주해 버린다(*Isaiah*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1], 65).

질 것이라는 예언인 셈이다. 과연 주전 732년에 시리아는 멸망당했고 북이스라엘은 북쪽 지역의 영토를 거의 다 상실했다. 그렇다면 8-9절은 당대에 실현된 예언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윗의 집 아하스 왕 대신에 벤다브넬을 왕으로 옹립하려는 시리아-에브라임 동맹의 악한 계획들은 무위로 끝날 것이다. 야웨 하나님은 아직도 다윗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적 보호를 받고 있는 “다윗의 집”(삼하 7:11-16)은 정작 자신이 야웨의 봉신임을 잊고 있다. 불신앙으로 야웨 하나님의 인내를 과도하게 짜내고 있다(사 7:13). 이사야는 아하스에게 단지 정적주의적인 경건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주재를 믿으라고 요구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은 현실 정치적 판단을 도와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하스는 눈앞에 보이는 두 대적 때문에 판단력이 마비된다.

이런 점에서 9절 하반절은 아하스의 영적 파탄을 예기한다. 만일 이러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지 못하면 다윗의 집은 정녕 굳세게 서지 못할 것이다. 9절 하반절의 “믿지 아니하면”은 직역하면 “머물지 않으면(신실하지 않으면)” 정도로 번역될 수 있는 말이다. 이 표현은 다시금 “네 집과 네 왕국이 내 앞에서 굳세게 되리라”(삼하 7:16)고 말하는 다윗 언약을 상기시키고 있다. 다윗 언약을 알아야 8절 상반절과 9절 상반절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이 9절 상반절은 “유다의 머리는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의 머리는 야웨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다윗 계열의 아들, 유다 왕이다”라는 점을 함의한다. 예루살렘을 굳게 지키기로 약속한 하나님이 궁극적 안전보장이라는 것이다(시 2:7; 89:2). “만일 다윗의 후손 왕이 이 약속을 기억한다면 아하스 왕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아하스와 다윗 왕가는 두 침략군의 세력을 과대평가하여 다른 더 큰 외국 군대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도(왕하 16:5-10) 다윗 왕조에게 걸려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다.

그래서 7:15-25는 아하스가 스알야습 예언을 믿지 않아 굳게 서지 못하면 오히려 유다 자체가 대파국적 몰락을 경험하여 오직 소수만 남은 아주 작은 나라로 축소될 것임을 증거한다. 아하스가 스알야습 예언을 믿었다는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열왕기하 16:5-10을 보면 아하스는 앓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군사원조를 요청하며 스스로 앓수르의 봉신으로 자신을 속박하였음을 알 수 있다(대하 28:20-21). 여기서 비로소 우리는 시리아-에브라임 동맹군을 “무서워하지 말고 동요하지 말라”는 이사야의 충고가 어떤 현실 정치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게 된다. 끝내 믿지 않으려는 아하스를 도와주려는 이사야의 인내는 점점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의 징조를 주신다.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징조는 상당히 조건적인 표적이요 징

조며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그 징조의 파급효과가 전혀 다른 양상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3.2. 다시 임마누엘 예언으로 도우시려는 하나님(10-17절)

임마누엘 표적 예언과 바로 앞 단락인 4-9절의 구조 신탁은 불가분리 관계에 있다. 두려움과 불신앙으로 굳어지는 아하스와 다윗의 집(10-13절)을 향한 이사야의 사역이 임마누엘 예언으로 심화된다. 스알야습 예언을 아하스가 충분히 믿지 못하자 이사야는 아하스에게 자신의 마음을 진정시킬 하나의 표적을 요청하라고 제의한다. 이사야는 기드온의 경우(삿 6:36-40)에 비추어 아하스가 징조를 구함으로써 하나님의 함께 하심, 즉 야웨의 도움의 확실성을 스스로 갖게 되기를 원하였다. 기드온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기 위하여 표적을 요청하라고 권고한 것이다. 11절의 이사야의 권고를 쉽게 풀어쓰면 다음과 같은 말이 된다. “왕이여 당신이 구하는 징조가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 지진이나 벼락과 관련된 징조라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실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만 있다면 어떤 영역의 초자연적인 징조라도 구해 보십시오.”²⁷⁾ 하지만 아하스는 표적을 구하려고 하지 않는다(12절). “나는 하나님에게 표적을 구하지도 않겠고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않겠다.” 아하스는 아예 이사야가 제시하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의향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야웨의 징조를 구하면 야웨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이었다.

이사야는 아하스와 다윗 왕실의 불신앙이 사람(예언자 자신)을 지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지치게 하는 행위라고 규정한다(13절).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징조를 주심으로 다윗의 집과 함께 하시겠다는 다윗 언약을 재확증하신다(시 46편). 임마누엘 예언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등장한다. “보라,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녀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로 부를 것이다”(14하반절). 임마누엘 예언은 구원 신탁으로 주어졌다. 여기서 임마누엘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은 8장에서 밝혀지겠지만 변증법적인 양상을 띠며 전개된다. 징조의 핵심은 한 여인이 낳는 “아들”이 아니라 그 아들이 두세 살이 되기 전에 일어날 “일”이다. 14-16절을 쉽게 풀어쓰면 이렇다. “한 여인이 아들을 낳고 임마누엘이라고 작명할 터인데 이 아이가 선약을 구분할 나이가 되기도 전에 아하스 왕 당신이 그토록 무서워하는 이

27) C. F. Keil & F. Delitzsch, 『舊約 註釋 이사야』, 최성도 역 (서울: 기독교문화협회, 1983), 243-244.

두 왕의 나라가 황폐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약속 확증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인 정체에 관한 질문이 아니다. 이 절이 70인역의 영향을 받은 신약 기자에 의하여 처녀 잉태 설을 예고한 예언으로 인정되지만(마 1:23) 적어도 여기서는 처녀 잉태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 징조의 핵심은 여인이 아니라 여인이 낳는 아들이 선악을 선택할 수 있을 나이인 서너 살이 되기 전에 시리아-에브라임의 영토가 유린되고 버린 바 될 것이라는 점이다. 두 동맹군의 압박한 패배와 영토 상실 이 징조의 핵심이다. 그동안 주석가들은 “임마누엘”이 누구의 아들인가가 이 예언의 요점인 것처럼 다루어 왔다.²⁸⁾ 깊이 들여다보면, 임마누엘 표적의 핵심은 그의 정체성이 아니라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버터와 꿀을 먹으리라”라는 것이다. 2-3년 동안에는 농업 몰락으로 인한 낙농업의 상대적인 번영으로 그가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다. 이 낙농업의 발달은 단지 경제적 번영을 가리키는 것이라기보다는 주곡 생산 경제의 몰락을 의미할 수도 있다. 핵심은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2-3년 내에 구원이 있을 것을 말하는 데 있다. 그러나 굳이 이 여인이 누구며 임마누엘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문맥상이 여인은 이사야의 아내며 임마누엘은 이사야의 아들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하는 몇 가지 실마리가 있다. 첫째, “[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고 번역하는 『개역』 성경과는 달리, 오히려 원전은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고 번역된다. 처녀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hā'almā*는 처녀가 아니라 가임 여성(*the young woman*)을 가리킨다. 둘째, 이사야 7-8장에서 아들을 낳고 예언적 이름을 짓는 사람은 이사야뿐이다. 셋째, 임마누엘의 이름은 그 아들을 낳은 어머니가 짓는다(3인칭 여성 단수, *qārā'th*). 이 여인이 요세푸스 등의 주장과는 달리 아하스 왕의 왕비일 가능성은 극히 적다. 오히려 문맥상, 선지자의 아내인 이사야의 아내(Rashi, Ibn Ezra, 그리고 J. J. Stamm 등의 견해)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²⁹⁾ 요세푸스 이래로 상당수의 주석가들(마틴 부버, 쉬무엘 바르곤 등)은 임마누엘을 히스기야로 이해해 왔으나 그 주석적 근거는 희박하다. 우가릿의 케렛(Keret) 본문들의 *'almā*의 용법 등에 비추어 임마누엘의 어머니를 왕의 아내, 즉 아하스의 왕비이자 스가라의 딸인, Abija beth-Zechariah, 즉 히스기야의 모친이라고 주장하는 카일-델리취³⁰⁾나 벨드버거의 주장도 설득력이 별로 없다.³¹⁾

28) 자세한 논의를 참조하려면, Hans Wildberger, *Isaiah 1-12*, 306-311을 보라.

29) 8:3 『개역』(또한 『개역개정』) 성경은 “내 아내”라고 중성적으로 처리하지만 마소라 본문(MT)은 “그 여선지자” 혹은 “선지자의 아내”(hannēbī'ā)라고 말한다. 이사야의 아내가 예언자적 인물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30) C. F. Keil & F. Delitzsch, 『舊約註釋 이사야』, 246-247.

아주 분명한 것은 7-8장에서 가임 여성이면서 동시에 예언적 의미를 가진 아들을 낳은 여인은 오로지 이사야의 아내뿐이라는 사실이다.³²⁾ 따라서 임마누엘은 이사야의 아들이라고 보는 것이 본문에 충실하다. 결국 이사야의 아내는 둘째 아들을 임마누엘이라고 작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다윗 언약의 핵심 조항을 재확증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사야의 아내가 아이의 이름을 짓는 예언자적 통찰력의 소유자로서 여선지자로 불리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8:3). 16절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작명 이유를 제공한다. 임마누엘이라고 불리는 아이가 서너 살 되기 전에 아람과 이스라엘 두 왕의 땅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전화에 휩싸여 황폐케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임마누엘 표적이 이사야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먼저 충분히 음미한 후에 기독교론적인 읽기로 나아가야 한다. 이 임마누엘 예언을 그리스도 예언으로 연결시키기 전에 먼저 이사야의 예언 사역이라는 당면한 맥락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다윗의 위(位)를 차지하실(사 9:5)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다윗 언약의 핵심을 확증짓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히 이사야 7:14의 성취를 의미하였다. 따라서 마태복음 1:23이 이 14절을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는 본문으로 읽는 것은 당시의 구약 해석 관습으로 볼 때 충분히 타당한 구약인증이였다. 역사적 맥락보다는 주제적인 유사성에 따라 당시의 랍비들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성경을 인용하거나 인용하였기 때문이다.

요세푸스 등 유대인 학자들이 임마누엘을 히스기야와 동일시하여 읽었다면, 기독교 주석가들은 임마누엘을 대체로 종말론적 그리스도와 동일시하는 읽기에 만족해 왔다. 기독교 주석가들은 가임 여성 “알마”를 처녀를 의미하는 “파르테노스”로 번역한 70인역을 인용하여 그리스도의 탄생 예언으로 재 전용한 마태복음에 영향을 받아 왔다.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의 강조점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한 처녀 잉태다. 이것은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의

31) Hans Wildberger, *Isaiah 1-12*, 310-311.

32) 반면에 7:14를 이사야 9장의 한 왕자의 탄생(특히 5-6절: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다”)과 연결시키는 학자들은 임마누엘의 탄생을 왕자의 탄생이라고 본다(W. Robertson Nicoll, *The Expositor's Bible: Isaiah*, 116-117). 그러나 유다의 왕정신학에 의하면 9장의 왕(자)의 출생은 생물학적 출생이 아니라 왕위 계승(시 2:7; 나단 신탁[삼하 7:12-16])을 가리키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임마누엘의 출생을 이사야 9장의 한 왕적 아들의 출생과 연결시켜 해석함으로써 7:14의 임마누엘이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하는 게리 스미스의 견해는 받아들이기 힘든 절충주의다. 그는 7:14의 임마누엘의 정체성은 7장 안에서는 규명될 수 없으나 후대의 점진적 계시인 9:1-9의 빛 아래서 보다 정확히 규명된다고 말함으로써 7:14를 메시아를 지칭하는 예언으로 읽으려고 한다. 그는 이 예언의 당대적 의미와 기독교론적 의미 둘 다를 포착하려다가 석의적인 정확성을 희생시킨다(Gary V. Smith, *Isaiah 1-39* [NAC; Nashville, Tenn.: Broadman & Holman, 2006], 201-203).

미를 갖지만 주전 8세기 이사야 당시의 맥락에서 보면 이 임마누엘 예언의 표적 초점은 처녀 잉태가 아니라 막 태어난 한 아이가 서너 살이 되기 전에 유다를 침공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멸망한다는 것이다. 그 아이가 자라서 서너 살이 되기 전에(선악 분별이 가능한 연령에 이르기 전에) 두 침략국이 멸망당할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한편 구약성경의 계약 역사로 보면 임마누엘 약속은 다윗 언약을 재확증하고 요약한 신학선언과 같은 역할을 한다(시 46-48편; 삼하 7:12-16). 이런 점에서 보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다윗 언약의 유효성에 대한 하나님 편에서의 확증이자 이사야와 그의 아내 편에서의 신앙고백인 셈이다. 다윗 언약이 유효하다면 필시 하나님께서 다윗의 위에 앉을 후계자인 “한 아들”을 다윗의 혈통에서 내실 것이기 때문이다(사 9:5-6). 그래서 결국 다윗의 아들인 아하스를 폐위시키고 다른 계통의 왕들을 세우려는 시리아-에브라임 동맹의 악한 꾀는 성사되지 못할 것이며 오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의 위는 계속 다윗의 후손에 의하여 차지될 것이다. 그러나 이 임마누엘 예언이 아하스가 요청해서 주어진 표적이 아니요, 불신앙으로 굳어져 가는 아하스(다윗 집)에게 책망과 위협의 분위기에서 주어진 구원 예언이라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임마누엘 예언이 갖는 이중성이 있다. 다윗의 집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세 단계에 걸쳐 경험할 것이다. 첫째, 두 동맹군의 신속한 궤멸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맞볼 것이다. 둘째, 앗수르의 대범람 한복판에서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의 함께 하심(거룩한 현존)을 맞볼 것이다(8:5-10; 28:14-22). 마지막으로 앗수르를 비롯한 이방 군대의 극적 패퇴와 시온에 대한 구출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맞볼 것이다(29:1-8; 30:27-33; 31:4-9).³³⁾

결국 17절은 아하스의 불신앙과 관련된 한 미래의 재난을 선포한다. 16절과 17절 사이에는 이 두 절을 인과 관계로 읽게 만드는 실마리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암시되어 있다. 에브라임과 유다가 분열된 역사 이래로 가장 최악의 “날들”(재난)이 유다 백성과 다윗 왕조에 임할 것이다. 곧 앗수르 왕의 유다 침략이라는 재난이다. 히브리어 마소라(MT) 구문에서는 “날들”(야뫼)과 “앗수르 왕”(에트 멜렉 아슈르)이 동격처럼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오게 할 날들은 “앗수르 왕”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유다의 대적들에게 가해질 심판과 재난을 말하는 16절에 비하여 돌연스럽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이 “날들”을 번영의 날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나(풍성한 버터

33) 둘째, 셋째 단계의 임마누엘 예언 성취에 대한 자세한 주석적 논의를 보려면, 김희권, 『이사야 주석 I』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215-221, 531-544, 552-564를 참조하라.

와 꿀을 먹는 생활을 근거로)(15, 22절) 전후 문맥상 축복 선언으로 보기 힘들다. 전체적으로 심판 문맥이다.³⁴⁾ 그런 점에서 17절은 18절 이하 단락의 서론 역할을 하고 있다. 17절의 “오게 하다”라는 동사는 1-17절을 하나의 자기 완결적인 단락으로 만든다.

3.3. 심판 예언 임마누엘로 전환되는 구조 예언 임마누엘(18-25절)

18-25절 단락은 왜 17절에 “날들”이라는 복수가 사용되었는지를 설명해 준다. 이 단락은 “그 날에는”으로 시작되는 네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7:18-19, 20, 21-22, 23-25). 이 날들은 주전 8세기에 일어날 재난의 날들임과 동시에 이후에 유다가 역사적으로 경험할 재난들을 총괄하는 날들로도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재난의 날들”은 유다 역사를 특징짓는 환난과 징벌의 사건들을 범례적으로 망라한다고 볼 수 있다.³⁵⁾ 이런 점에서 18-25절은 단지 아하스 왕에게 들려진 말임을 넘어 미래 세대의 청중들에게 들려진 말이기도 하다. 다만 이 네 단락이 모두 한 시대를 겨냥한 단일 예언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18-19절, 20절은 아하스 시대에 선포된 예언으로 앞 단락의 17절과 부드럽게 연결되지만, 21-22절과 23-25절은 불특정 미래 세대를 겨냥한 예언이다.³⁶⁾

18-19절은 애굽의 파리들과 앓수르 땅의 벌이 이스라엘의 초장을 점령하는 날을 예고한다. 하나님께서 불러들이는(5:26) 애굽 하수의 파리떼와 앓수르의 벌떼는 엄청난 수의 공세적인 군병들을 상징한다. 이 두 나라의 군사적 조우는 주전 701년 앓수르의 유다 침략 시점이었을 것이다(사 36장). 당시 유다는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고 애굽의 출병을 요청했다. 구스 왕(애굽 왕) 디르하가는 엘테크에서 앓수르 군대와 교전했던 것으로 전해진다(참조. 왕하 18:21, 24; 19:9).³⁷⁾ 유다의 힘 숭배 정치, 동맹 의존 정치는 야웨의 봉신국가

34) 바르곤(Vargon)은 18-25절을 위로 예언으로 읽는 유대인 주석가들을 논박하고 있다(ibid., 109-113). 다만 18-19절과 20절은 아하스 시대를 겨냥하고 21-22절과 23-25절은 이사야의 예언이긴 하지만 불특정 미래 세대를 겨냥하고 있다고 말한다.

35) Shmuel Vargon, “Isaiah 7:17-25: Prophecy of Rebuke or Consolation?”, 111; G. B. Gray, *The Book of Isaiah I-XXVI*, ICC (Edinburgh: T & T Clark, 1956), 136-141; E. J. Kissane, *The Book of Isaiah* (Dublin: Browne and Nolan, 1941), 88-89; O. Kaiser, *Isaiah 1-12*, 2nd ed., J. Bowden, tran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3), 106-109.

36) 18-25절 단락은 대체로 아하스 시대 이후에 유다가 경험한 심판을 범례적으로 압축한 예언으로 간주될 수 있다(목회와 신학 편집부, 『이사야 1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서울: 두란노 아카데미, 2008], 247).

37) 엘테크 전투에 대해서는 ANET, 287의 “the Taylor-Cylinder”를 참조하라. 이 예언을 이사야 당대에 벌어진 주전 701년의 엘테크 전투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으로 읽는 것을 의심하게 할 만한 실마리는 없다(Bernd U. Schipper, *Israel und Ägypten in der Königszeit* [Göttingen:

로서의 정체성을 배반하는 일이었고 그것은 현실적으로 힘이 센 동맹국에 대한 의존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유다는 국제전의 전쟁터로 변한다는 것이다.

20절은 하나님께서 앓수르를 직접 강 저편에서 불러 유다를 결정적으로 패배시키는 날에 대하여 말한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앓수르를 강 저편에서 빌려온 삭도(削刀)라고 규정한다. 아하스는 시리아-에브라임의 공세를 막아내기 위하여 앓수르의 군사적 원조를 요청하였다.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 편에서는 전혀 다른 차원을 가진다. 앓수르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극단적으로 낮추기 위한 도구다. 머리털이나 수염을 자르는 행위는 전쟁포로들의 기를 꺾어 놓는 방편이었다. 따라서 “수염을 자르는 행위”는 앓수르가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유다를 겸비케 하고 쇠약하게 하기 위하여 앓수르를 주권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사 5:26-30).

21-22절은 농경 사회가 퇴행하여 목축 사회로 변모되는 날을 예고한다. 앓수르에 의하여 굴욕케 된 유다 땅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그린다. 목축업과 낙농업 중심 사회로 되돌아간다는 것이다. 농경사회에서 목축 유목사회로 되돌아가는 것은 엄청난 낙농업 생산량의 증가를 초래하겠지만 문명사적으로 보면 일종의 퇴행이다. 땅이 황무케 되고 농업이 몰락했다. 농업의 몰락은 지주 계급의 몰락을 의미하였다. 20절에서 말하는 “수염이 잘리는” 굴욕은 특히 유다 왕국의 전통적 귀족층과 지배층의 굴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경작지가 버려지면 즉시 목초지로 바뀌게 된다. 유다 사회는 목축 사회로 되돌아가 모든 사람이 한 마리 암소와 두 마리 양을 기를 정도가 된다는 것이다. 목축업과 양봉업이 번성하게 되어 사람들은 버터와 꿀을 주식처럼 먹게 된다. 소수의 남은 자가 작은 수의 가축이 생산하는 것으로 풍요롭게 산다는 것이다. 인구 밀도가 낮기에 오는 역설적 풍요다. 이 상황이 농업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은 마지막 단락이다.

마지막으로 23-25절은 왜 목축이 흥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보여준다. 하나님의 심판(전쟁)으로 유다 농토는 저주받은 땅으로 변해 버렸기 때문이다. 포도주 천 주가 서 있던 곳이 황무지로 가시와 질려의 땅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것이다(비교. 사 5:12; 아 8:11). 에덴이 경험한 저주가 재현된다(창 3:17-18). 경작지는 다시 야만적 자연 상태로 되돌아가서 야생 짐승들의 보금자리로 변해 버렸다. 그래서 가시덤불로 바뀌어버린 땅을 소떼가 밟아주지 않으면 사람이 통행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질려와 형극으로 가득 찬 그 땅에는 야생

짐승들이 창궐하여 사람들은 다시 살과 활로 무장하여야 통행할 수 있는 처지가 되어 버린 것이다.

결국 21-25절에 예언자는 유다가 이제 극소수의 남은 자만 상대적으로 오는 풍요를 누리는 사회가 되어 버렸다고 선언하고 있다. 빵과 포도주 등 주곡이 아니라 목축업의 산물인 버터와 꿀을 주식으로 먹는 것은 농업의 대실패를 의미하는 저주와 심판인 것이다.

4. 결론

이상의 사역(私譯)과 번역상의 쟁점에 대한 논의는 이사야의 신탁이 아하스 왕과 다윗 왕실을 정조준하며 선포되었고,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국가적 몰락을 초래할 만한 시점에서 선포되었음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앞에서 시도된 사역은 그 동안의 번역에서 간과되었던 세 가지 문제를 적시하고 규명하려고 한다.

첫째, 아하스 왕이 이사야를 통해 받은 구원 신탁은 다윗 가문과 맺은 야웨 하나님의 종주다운 보호 제의였는데, 아하스와 유다 왕실이 믿지 못했음을 부각시킨다.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불신앙은 거룩한 종주이신 야웨와의 동맹 관계 이탈을 의미하는 반역죄로서 국가적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죄였음을 강조한다.

둘째, 임마누엘 표적 예언을 마태복음의 기독교론에 의해 윤색되기 이전 상태로 복원하여 주전 8세기 이사야의 예언 문맥 안에 해석했다. 임마누엘 예언의 핵심은 아이가 태어나는 방법의 초자연성, 아이를 낳은 사람의 정체성이 아니라, 아이가 자라서 선악을 구분할 정도가 되기 전, 곧 2-3년 안에 예루살렘을 포위한 아람-이스라엘 동맹군이 궤멸되고 패퇴될 것이라는 선언이다. 임박한 구조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구원 표적인 것이다. 임마누엘 이름 작명자가 그를 낳은 어머니임을 강조하여 “하알마”가 이사야의 아내일 가능성을 제기한 것은 작은 주석적 기여라고 생각한다.

셋째, 몇 군데서 “와우”를 등위접속사가 아니라 전치사(함께)로 해석하여 동사의 주(主)행위자와 부(副)행위자를 드러냄으로써, 문맥의 불명료성을 제거하였다.³⁸⁾

결국 이사야 7:1-25는 이사야의 구조(救助) 예언을 믿지 못하는 다윗 집의

38) 8절 “육십오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에 대해 시도된 라버츠의 사역도 주목되어야 한다.

영적 파탄과 그로 인한 군사적·정치적 재난을 다룬다. 특히 18-25절 단락은 원래는 구원 예언이었던 임마누엘 예언이 부정적으로 작동하는 과정을 자세히 보도한다. 원래 구원 예언인 임마누엘 예언을 믿지 못하면 결국 그 상서로운 예언이 유다/다윗의 집에 파괴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 아하스 왕 때의 불신앙은 히스기야 왕 때에 나쁜 방향으로 진화되고 발전된다. 역사적으로 이 심판의 궁극적 집행은 아하스 시대에 집행되지 않고 히스기야 때에 이루어진다. 적어도 21-25절의 파국적 재난은 히스기야 시대에 일어났다. 히스기야는 아하스의 불신앙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고 유다의 군사 대국화를 기도(企圖)하며 반앗수르 동맹을 주도하다가 팔레스틴 일대를 앗수르-에굽의 국제전의 전장으로 만드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다(30-31장).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믿지 못하면 한갓 피조물인 강대국을 신적 구원자요 해방자로 영접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유다를 구조하러 온 이 신적 강대국들(앗수르와 에굽)이 유다의 전 국토를 유린한다. 도움을 주러 온 강대국이 정복자로 돌변한 것이다. 유다는 이런 점에서 불신앙의 대가를 고통스럽게 치렀다. 아하스와 히스기야 두 세대에 걸쳐 누적된 불신앙의 결과 유다는 앗수르를 통해 자신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항하다가 대파국적 참변을 당한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사야서 전체가 제기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하나님의 구원 간섭에 대한 현실적 신뢰와 아울러 강대국 의존정책의 포기나 유보를 의미했다. 하나님의 구원 간섭을 신뢰하지 못할 때 필연적으로 강대국, 혹은 무력 승배를 초래해 국가적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아하스-히스기야 2대에 걸쳐 다윗 왕실이 다윗 언약에 입각한 하나님의 구원 간섭에 대한 믿음을 견지했다면 유다 전역이 앗수르-에굽 전쟁의 전장으로 전락하는 사태를 예방할 수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상상을 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간섭에 대한 믿음은 강대국들의 침략과 국가 멸망 위협으로부터 유다 왕실을 지켜주고, 더 힘센 강대국의 군사력에 대한 자기 과멸적 의존을 막아주기 때문이다. 다윗 왕실의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통해 들려진 하나님의 구원 신탁을 믿지 못하고 강대국과의 동맹 외교와 군사 무장화를 통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다가 더 큰 화를 초래했던 것이다. 아하스 왕의 요청으로 출병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시리아-에브라임의 반앗수르 동맹을 응징하기 위해 남진한 앗수르 군대에 의해 두 나라가 망하자 유다 왕국은 앗수르 제국과 국경을 맞대는 더 큰 위기에 직면했던 것이다. 시리아-에브라임이라는 완충지대의 도움이 없이 앗수르 제국의 압박과 침략 위협에 시달리다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은 다시 굴욕

적인 친앗수르 정책을 펼치다가 국가적 멸망을 돌이킬 수 없는 운명으로 만들어버렸다(왕하 21:16). 요시야 왕의 국가 개혁도 므낫세 왕이 야웨 하나님을 격노케 한 그 우상 숭배, 만아들 희생제사, 압제적 정치의 죄악 후유증을 청산할 수 없었고 유다 왕국은 결국 멸망의 길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다.

<주요어>(Keywords)

다윗 언약, 이사야, 믿음, 시리아-에브라임 위기, 아하스 왕.

the Davidic covenant, Isaiah, trust, the Syro-Ephramite crisis, King Ahaz.

(투고 일자: 2012년 10월 15일, 심사 일자: 2013년 2월 22일, 게재 확정 일자: 2013년 4월 11일)

<참고문헌>(References)

- 김희권, 『이사야 I』,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 곽안련, 『이사야서 연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58.
- 목회와 신학 편집부, 『이사야 1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두란노하우주석시리즈 23,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8.
- Albright, W. F., “The Son of Tabeel(Isaiah 7:6)”, *BASOR* 140 (1955), 34-35.
- Alexander, Joseph A., *Commentary on the Prophecies of Isaiah*,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76.
- Begrich, J., “Das priesterliche Heilsorakel”, *ZAW* 52 (1934), 81-92.
- Budde, K., “Das Immanuelzeichen und die Ahaz Begegnung Jesaja 7”, *JBL* 52 (1933), 22-54.
- Childs, B. S., *Isaiah*,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1.
- Gitay, Y., *Isaiah and His Audience. The Structure and Meaning of Isaiah 1-12*, Asen; Maastricht: Van Gorcum, 1991.
- Gray, G. B., *The Book of Isaiah I-XXVI*, ICC, Edinburgh: T & T Clark, 1956.
- Kaiser, Otto, *Texte aus der Umwelt des Alten Testaments*,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1982.
- Kaiser, Otto, *Isaiah 1-12*, 2nd ed., J. Bowden, tran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3.
- Keil, C. F. and Delitzsch, F., 『舊約 註釋 이사야』, 최성도 역, 서울: 기독교문화협회, 1983.
- Kim, Hae Kwon, *The Plan of Yahweh in First Isaiah*, Michigan: UMI dissertation series, 2001.
- Kissane, E. J., *The Book of Isaiah*, Dublin: Browne and Nolan, 1941.
- Kugel, James L., 『구약성경 개론』, 김구원, 강신일 역, 서울: CLC, 2011.
- JPS editors, *JPS Hebrew-English Tanak*, Philadelphia: JPS, 1999.
- Miller, J. M. & Hayes, J. H., *A History of Ancient Israel and Judah*, Philadelphia: Westminster, 1986.
- Nicoll, W. Robertson, *The Expositor's Bible: Isaiah*, New York: Funk & Wagnalls Company, 1900.
- Roberts, J. J. M., “The Davidic Origin of the Zion Tradition”, *JBL* 92 (1973), 329-344.
- Roberts, J. J. M., “Isaiah and His Children”, *Biblical and Related Studies presented to Samuel Iwry*, Ann Kort & S. Morschauser, eds., Winona Lake: Eisenbrauns, 1985, 193-203.
- Roberts, J. J. M., “Yahweh's Foundation in Zion(ISA 28:16)”, *JBL* 106:1 (1987),

27-45.

- Sawyer, John F. A., 『제 5복음서』, 김근주 역,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3.
- Schipper, Bernd U., *Israel und Ägypten in der Königszeit*,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9.
- Smith, Gary V., *Isaiah 1-39: The New American commentary*, Nashville: Broadman & Holman, 2006.
- Soggin, J. Alberto, *An Introduction to the history of Israel and Judah*, John Bowden, trans., Valley Forge: Trinity International Press, 1993.
- Vargon, Shmuel, "Isaiah 7:17-25: Prophecy of Rebuke or Consolation?", *JANES* 26 (1998), 107-120.
- von Rad, G., *Der Heilige Krieg im Alten Israel*, Zürich: Zwingli-Verlag, 1951.
- Watts, J. D. W., *Isaiah 1-33*, WBC, Waco: Word Books, 1985.
- Wildberger, Hans, *Isaiah 1-12*, T. H. Trapp, trans., Minneapolis: Fortress, 1991.

<Abstract>

An Inquiry into Translational Issues of Isaiah 7:1-25

Prof. Hae Kwon Kim
(Soongsil University)

The twofold purposes of the present article are first to discuss several translational issues Isaiah 7 through an exegetical inquiry into it and then to offer a new translation of the present chapter, which can be summed up in a sentence: “You shall not stand firm, if you do not believe.” Isaiah 7 deals with the vital impact of faith in God intervening in human affairs on real political decisions, which runs through the entire book of Isaiah. The prophet Isaiah challenges King Ahaz to trust in the Lord and stay firm even in the face of military threats of the Syro-Ephramite coalition against herself and instead absolutely trust in God’s unconditional commitment as promised in the Davidic covenant (2 Sam 7:12-16).

However, King Ahaz and the House of David seriously oscillated between trust in God and trust in a powerful foreign nation like Assyria or Egypt. Isaiah 7 illustrates how badly faith in a living God affects the real political decision of a nation and its aftermaths. Isaiah 7 chronicles the two historic failures of the House of David in a salvific intervention of Yahweh God of Israel on behalf of Israel: the Syro-Ephraimite crisis(B.C. 735-732) and the B.C. 701 Assyrian crisis.

While Isaiah urged both King Ahaz and King Hezekiah to trust God alone, the House of Judah failed to trust in the intervention of God in the two crises and instead relied on powerless idols such as foreign powers and spirits of dead ancestors. Nonetheless, Isaiah 7 emphasizes that the human infidelity of Judah to the divine covenant of God to the House of David could not nullify Yahweh’s zeal for the House of David.

In closing the translation and exegesis of Isaiah 7 offered above has offered some new translations of several key verses in Isaiah 7 such as v. 3 and v. 14, whose nuances have been overlooked.